

# 항공업계, 고용지원금 연장 촉구... “무급휴직 말고 답 없어”

내달 고용유지지원금 종료 예정  
22일 논의 예상... 연장 불투명  
“운항 정상화까지 시간 더 필요”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 예정인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지원금 지급이 끊길 가능성이 높아 항공업계의 시름이 깊다.

14일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등 항공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입국 규제 완화로 여객 수요는 증가 추세에 올랐지만 국제선 정상화 시점까지 도달하려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3월 14개의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고 여기에 항공사도 포함됐다.

항공업계는 고용유지지원금의 보조 덕분에 코로나19 속에서도 대대적인 감원 없이 고용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정부가 휴직수당 중 3분의 2를 지원하는 형태로 휴직 기간에도 최소 평균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항공업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준을 넘긴 기간 동안 지원금을 받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세워져있는 FSC와 LCC 항공기들

/뉴시스

‘보릿고개’를 넘기고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마저도 없어질 전망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는 흑자로 전환된 항공사는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에 대한 논의는 오는 22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원기간 연장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LCC 노동조합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 노조는 “각 항공사가 반복적인 유상증자와 차입금으로 힘겹게 버티는 상황에서 7월부터 정부 지원금이 종료된다면 이는 유급휴직을 지원할 자금이 부족할 것”이라며 “40%의 직원들이 무급휴직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소 70%는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실질 소득은 더 낮고 물가상승 상황 속에서 2년 3개월을 버텨온 것”이라며 “코로나19 완화 국면에 정부에서 규제완화를 했다고 하지만 국제선 운항 편수가 코로나19 이전의 절반은커녕 20%대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을 끊는다는 것은 항공 정상화를 늦출 뿐”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업계는 국토교통부가 국제선 증편 규모, 슬롯, 커뮤(야간비행금지시간) 규제 등을 해제했지만 이러한 규제 완화가 시장에 반영하려면 일정 시간이 걸리고, 여전히 1개월 단위로 노선을 허

가해주는 통에 증편 계획을 세우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또한 화물기로 돌렸던 여객기를 다시 준비하고 코로나 때 휴직한 직원들을 복귀시키는 등 준비가 필요해 인건비 부담도 더 커질 전망이다.

LCC 대표들도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이 없는 항공업 정상화가 힘들다고 봤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제주항공의 현재 직원의 휴직률은 60% 수준으로 정상화 가는 과정에 있다”면서도 “운항과 객실은 45~50%대로 (복직률이) 더 낮다. (여객기 중심의) 저비용항공사는 코로나19 영향에서 아직 벗어나기 힘들다”라고 설명하며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촉구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이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 여객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화물 실적으로 작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낸 대한항공은 이미 지원금 지급이 종료된 첫 대한항공사다. 대한항공은 올해 4월부터 직원들의 유급휴직 수당을 자체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LCC들이 대한항공처럼 유급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LCC 관계자는 “코로나19 동안 쌓인 적자를 벗어나려고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데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기면 업계가 리오프닝이라고 해도 회복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LCC 중에 몇이나 유급휴직 수당을 대한항공처럼 지급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LCC업계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실제로 모든 국내 LCC들은 3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되면 무급휴업 등으로 영업손실 방어를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종료되면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자 감면 및 납부유에 조치도 함께 중단될 가능성도 크다. 한 LCC 관계자는 “확정된 바는 없지만 무급휴직 말고는 답이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LGU+, 6G ‘초성능·초정밀’ 알고리즘 확인

카이스트와 네트워크 최적화 연구  
기술 상용화시 ‘초공간성’ 구현 전망

LG유플러스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협력해 양자 컴퓨터로 6G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 최적화 연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LG유플러스와 KAIST 이준구 교수 연구팀, 한동수 교수 연구팀은 6개월간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D-웨이브(D-wave) 양자컴퓨터를 사용해 6G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 망 구조 최적화를 연구했다.

위성 네트워크에서는 데이터가 오고가는 경로가 연결점(node)의 수에 비례해 늘어난다.

특히 6G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 최적화에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200~

2000km 상공에 떠있는 저궤도 위성은 고도 3만6000km에 고정된 정지궤도 위성과는 달리 위성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바뀌는데, 단시간에 최적의 네트워크 구성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이를 ‘이차 비제한 이진 최적화 문제(QUBO)’로 보고, 양자컴퓨터로 하나의 위성에서 통신할 수 있는 주변 위성의 개수와 거리를 정해 양자 컴퓨터로 빠르게 계산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의 양자컴퓨터를 이용한 위성 네트워크 최적화 알고리즘은 기존 최적화 알고리즘 대비 홉(Hop)의 수와 경로 길이가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통해 위성통신 환경에서도 지상통신과 차이가 없는 초성능(1Gbps 이상의 사용자 체감속도)·초정밀(중단

간 5ms 이하의 지연시간)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홉은 연결하지 않고 건너 뛰는 연결점으로 홉의 수가 적을수록 최적화 수준이 높다.

이 최적화 기술이 상용화되면 6G에서 추구하는 ‘초공간성’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초공간성’이란 지상에서 고도 10km까지, 최대 시속 1000km로 움직이는 물체에도 통신을 연결하는 것을 뜻한다. 최적화된 위성통신을 이용하면 지상 뿐만 아니라, 비행기나 사막 등 지금은 통신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에서도 6G 통신이 가능해진다.

양자컴퓨터는 양자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해 높은 연산력을 발휘한다. 현재 IBM, 구글, AWS,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에서 양자컴퓨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채윤정 기자 echo@



대한항공,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 시장 공략

대한항공은 지난 13일 대전 유성구 전민동 소재 항공기술연구원에서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 개발센터’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 개발센터’ 설립은 특화된 전담 개발조직을 구성해 대한항공이 이 동안 축적해 온 저궤도 무인기 분야의 기술력을 고도화하며 미래 스텔스 무인기 시장을 선점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 현대로템, 유로사토리 방산 전시회 참가

차륜형 장갑차, 다목적 무인차 등 홍보

현대로템은 프랑스 파리에서 13일부터 17일(현지시간)까지 열리는 2022 유로사토리 국제 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K2전차와 차륜형 장갑차, 다목적 무인차량 등을 홍보한다고 14일 밝혔다.

유로사토리는 1967년 시작해 2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지상무기 전시회다. 올해는 60여개국에서 1800개 업체가 참가한다. 현대로템은 2018년 처음 참가했으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전시회가 취소되면서 이번이 두번째 참가다.

현대로템은 전시회에서 한국 주력전차인 K2전차와 차륜형 장갑차 수출을 위한 영업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다목적 무인 차량으로 개발된 ‘HR-셰르파(Sherpa)’와 차세대 전자 등을 소개한다. /양성운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KT AI 방역로봇 현장 도입

KT가 최신 방역기술과 인공지능(AI) 로봇을 결합한 ‘KT AI 방역로봇’을 닥터부동산홍보관에 시범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닥터부동산홍보관은 O2O 부동산 솔루션 제공 업체인 ㈜선방과 닥터아파트(㈜)가 함께 론칭한 부동산홍보관이다. 닥터부동산홍보관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상가를 시작으로 압구정동, 청담동, 서초동 등에 있는 부동산홍보관에 순차적으로 KT AI 방역로봇을 도입할 예정이다. /채윤정 기자

## SK&C 종합병원에 AI 뇌출혈 영상솔루션 공급

SK(주)C&C가 개발한 AI 뇌출혈 영상 의료 솔루션이 공공 의료기관에 이어 국내 주요 종합병원에 속속 도입되고 있다.

SK C&C(대표이사: 박성하, skcc.co.kr)는 14일 정부 주관 ‘닥터앤서 클리닉’ 사업에 참여한 전국 권역별 주요 중

합병원 11곳에 AI 뇌출혈 영상 의료 솔루션 ‘메디컬 인사이트 플러스 뇌출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SK C&C는 의료진이 메디컬 인사이트 플러스 뇌출혈을 활용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 SKT PASS 프라임 가입시 미술품 소유권 증정

SK텔레콤은 ‘PASS 프라임’ 서비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미술품 분할소유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30일까지 ‘PASS 프라임’에 유료로 가입한 고객 중 선착순 5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우환,

박서보 등 유명 작가 미술품의 분할소유권(2000원 상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PASS 프라임’은 휴대전화 본인 인증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ASS머니를 적립해주며 신용정보, 주식정보, 금융정보 등의 핵심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다. /채윤정 기자